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3차 토론회 결과 보도

서울 사립초 1~2학년, 매주 평균 7.1시간 영어 수업을 실시해..

- ▲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매주 평균 7.1시간(연간 총255시간, 영어몰입교육 시수 포함)의 영어수업을 편성하여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 ▲ 이외에도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분반 편성, 단어인증시험과 공인영어인증시험 실시 등 사립초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
- ▲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유아영어학원(소위 '영어 유치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중,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춘진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선행학습 형태의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1~2학년에서 매주 평균 7.1시간(연간 총255시간)의 영어수업을 편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국가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부터 엄청난 양의 영어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다양한 체험과 특기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영어몰입교육의 명분을 내세워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매주 평균 7.1시간의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총 수업시수로 계산할 경우 255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결과 아직 어린 초등

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입학 직후부터 매일 6~7교시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국가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3~4학년 때 2시간(연간 68시간), 5~6학년 때 3시간(연간 102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1] 2012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연간 평균 영어시수

	주간(hr)	연간(hr)
전 학년	7.58	269.67
1, 2 학년	7.09	254.91

(※ 각 학교의 영어시수는 첨부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분반 편성, 단어인증시험과 공인영어인증시험 실시 등 선행학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립초등학교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

사립초등학교는 과도한 양의 영어수업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2~4단계로 수준별 분반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중학교 수준, 고학년에게는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준별 반 편성과 영어 능력 테스트를 위해 공인영어인증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교과서도 <저니>(Journey), <코너스톤>(Corner Stone) 등과 같은 미국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유아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

이와 같이, 영어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교육의 틀 안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아직 어린 아동을 과도한 학습 부담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취학 전부터 이루어지는 과도한 영어사교육의 중요한 유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을 충실히 따른 학교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기관에서 그 이전에 영어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모순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출발 기관 역할을 하는 유치원 단계 교육에서도 상급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 5세 누리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공교육 체제 안에 사실상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사교육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규제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 영역의 조기영어교육 규제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유아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아영어학원을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개별 아동에게 제공되는 주당 수업 시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교육 기관일지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아동에게 주당 80~120분(40분 단위 2~3교시)이 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의 프로그램을 규제할 경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는 있지만 아동의 성장,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산 방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완화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교과의 경우 가르치는 내용의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진도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진도나 프로그램이 아닌 시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신의 인지 발달 수준과 맞지 않는 성인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연령 제한을 통해 규제하는 것과, 현재도 불법인 조기유학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선행학습 금지법에 포함시키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후 '선행학습 관련 해외 사례 검토(4차)',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5차)',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발표 공청회'(6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와 입법청원 운동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 6.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위한 6회 연속토론회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2. 5. 15 ~ 6. 28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문 의: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 주요 일정

기 간	주 제	발 제	토 론
1차 토론회 (5/15, 화요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임미선(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신현승(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이남수('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 저자)
2차 토론회 (6/1, 금요일)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 포럼 부대표, 해성여고 수학교사)	홍진근(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최영석(송파청산수학원 원장)
		최수일(前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수학 교육연구소 소장)	조성실(도봉초등학교 교사)
			윤경숙(교과부 수학교육정책팀장)
3차 토론회 (6/8, 금요일)	조기영어교육 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우(국제영어대학원 교수)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민석(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노성임(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박상화(교과부 영어교육정책팀)
4차 토론회 (6/14, 목요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	황선준(前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	
		류청산(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김현숙('영국학교 시민교육' 저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차 토론회 (6/21, 목요일)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	김춘진 국회의원	신문규(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 구소 부소장)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6차 토론회 (6/28, 목요일)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중
			이현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서남수(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